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formant-Report Form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K-PID-5-IRF)

Seon-Young Ahn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This study set out to translate into Korean the Informant-Report Form of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IRF), which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DSM-5 Personality Trait Model comprised of five domains and 25 facets, and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For these purposes, the items of PID-5-IRF in English were translated into Korean through the process of translation and reverse translation and organized the entire items so that they would have consistent meanings with the item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Report Form of PID-5 (K-PID-5-SRF). K-PID-5-IRF ($n = 230$) and K-PID-5-SRF & 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n = 176$) were conducted to college students and ordinary citizens aged 18 or older.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K-PID-5-IRF recorded a high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 in domains and facets. Its factor structure properly matched overall that of PID-5-IRF in English and that of the DSM-5 Personality Trait Model despite number of factors and differences in three facets between them. Concordance between K-PID-5-SRF and K-PID-5-IRF was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of their English counterparts, but i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nd was in a proper level founded in researches on correlations between the informant-report form and the self-report form on personality. Finally, domains and facets of K-PID-5-IRF had a relatively appropriate match with the core personality traits of each personality disorder. These findings imply that K-PID-5-IRF is a tool to assess the personality traits of grown-ups in a reliably and valid manner.

Keywords: personality disorder, DSM-5, DSM-5 section III,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K-PID-5, K-PID-5-IRF, informant report

2013년에 새로이 출간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에서 성격장애는 기존 DSM-IV의 범주적 진단분류가 수정되지 않고 Section II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성격장애의 범주적 모델은 특정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가 단일한 성격장애의 특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SM-IV에서도 범주적 접근의 한계를 설명하며 이를 보완할 차원적 모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런 점

에서 DSM-5의 Section III에서 대안적 차원 모델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도 성격장애를 대표하는 차원적 모델인 성격 5요인 모델을 통해 성격장애를 변별하고 기술할 수 있음이 검증되면서 성격장애의 차원적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wang, Yoon, & Lee, 2008).

PID-5(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Krueger, Derringer, Markon, Watson, & Skodol, 2012)는 DSM-5의 Section III에서 소개된 성격장애의 차원적 모델인 병리적 성격 특질(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성격 특질이란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느낌, 지각, 행동, 생각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다섯 가지 영역(domain)과 25가지 양상(facet)으로 구성된 병리적 성격 특질 모델은 성격장애와 관련된 부적응적인 성격

[†]Correspondence to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E-mail: anssony038@naver.com

Received Jul 2, 2018; Revised Nov 25, 2018; Accepted Nov 27, 2018

특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성격 특질들의 반대 극단에는 적응적이고 건강한 성격 특질들이 존재한다.

PID-5의 경우 대부분의 성격장애 평가 도구들처럼 자기보고형으로 개발되었다. 자기보고형은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이며 성격장애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대다수가 자기보고형을 평가 도구로 채택하고 있다(Oltmanns & Turkheimer, 2009). 이는 그만큼 자기보고형이 성격을 평가하기에 신뢰롭고 타당한 유형임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맹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Vazire & Carlson, 2011) 상황에 따라 자기보고형을 보완할 평가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증상이 타인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자기보고형 검사는 실제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Grove & Tellegen, 1991; Klonsky, Oltmanns, & Turkheimer, 2002; Oltmanns, Gleason, Klonsky, & Turkheimer, 2005; Westen, 1997). 더불어 성격장애는 일반적으로 자아-동조적(Ego-syntonic)이라는 특징이 있다(Hirschfeld, 1993).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성격이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Carlson, 2013). 자아-동조적인 특징을 가진 개인이 자기보고형 검사로만 자신의 성격을 평가한다면 편향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이 겪는 문제를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격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Oltmanns et al., 2005). 이 때문에 문제 상황을 스스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인을 타인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려 한다(Clifton, Turkheimer, & Oltmanns, 2005; Oltmanns & Turkheimer, 2009). 특히 편집성, 자기애성, 반사회성,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고통을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보고형 검사에 정확하지 않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Klein, 2003; Westen & Heim, 2003). 한편 성격장애가 있는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의도 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검사에 응하게 되면 실제 성격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McGrath, Mitchell, Kim, & Hough, 2010). 이 경우 환자는 자신의 성격장애를 과소보고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하여 답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꾀병(Malingering)처럼 이차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환자는 신체적·심리적 징후와 증상이 없더라도 의도적

으로 있다고 반응하거나 상태를 과장하여(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자기보고형 검사에 극단적으로 나쁘게 답할 가능성이 있다. 성격장애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애 진단을 받아 재정적인 보상을 취하거나 법적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이차적 이득을 위해 과장된 자기보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Cho, Lee, & Kim, 2008). 이처럼 응답자가 실제보다 더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거나 더 많은 증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자기보고형 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적인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대안적인 방법으로 정보제공자보고형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보고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타당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Markon, Quilty, Bagby, & Krueger, 2013). 정보제공자보고형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평가대상자와 가까운 관계의 가족 구성원, 친구, 연인, 친척 등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평가대상자에게 직접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다른 측면을 제공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준다(Rushton, Brainerd, & Pressley, 1983). 자기보고형은 정체성과 같은 성격 내면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고 정보제공자보고형은 타인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성격의 외적인 부분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Carlson, Vazire, & Oltmanns, 2013; Hogan, 1998; Vazire, 2010; Vazire & Carlson, 2011). 특히 업무 능력과 같이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성격 특성들을 평가하는 연구의 메타 분석에서 정보제공자보고형은 자기보고형보다 더 나은 외적 타당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Connelly & Ones, 2010; Duckworth & Kern, 2011; Oh, Wang, & Mount, 2011). 성격장애에 관한 Klein(2003)의 추적 연구 결과, 자기보고형과 정보제공자보고형 모두 우울 증상과 전반적인 기능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오직 정보제공자보고형만이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였다. 이런 점에서 정보제공자보고형은 자기보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Vazire, 2006; Olino & Klein, 2015).

PID-5 자기보고형 개발 연구자들 또한 추후에 자기보고형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으로 정보제공자보고형(Informant-report)의 개발을 제안하였다(Krueger et al., 2012). 이에 따라 Markon 등(2013)은 PID-5의 정보제공자보고형(an Informant-Report Form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IRF)을 개발하였다.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은 자기보고형과 유사한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고, 요인 및 문항 구성이 자기보고형과 유사하고 성격장애 특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요인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성격평가 도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했을 때 성격의 손상과 고통,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행동조절 곤란 등의 특

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이 병리적 성격을 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Markon et al., 2013).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임상 평가를 위해서 병리적 성격 특질 모델의 5개의 영역과 25개 양상에 대해서 자기보고형과 정보제공자보고형 자료 둘 다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국내에서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PID-5-IRF)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영문판과 비교하여 신뢰도 수준이 유사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요인분석으로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 한국판 PID-5 자기보고형 영역(domain) 및 양상(facet)과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내에서 성격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격장애 진단검사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각 영역 및 양상들이 어떤 성격장애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형-정보제공자보고형의 일치도를 보기 위하여 평가대상자(target)와 정보제공자(연구대상자; informant)를 짝지어 200쌍을 모집하였다. 여기서 20쌍의 자료가 두 보고형 중 하나 혹은 둘 다 수집되지 않았고 4쌍의 자료가 평가대상자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평정하는 문항과 본 설문지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였는지 평정하도록 만들어진 문항에서 5점 미만(7점 만점)에 응답하여 이를 제외하고, 총 176쌍(총 352명)의 자료가 상관분석에 사용되었다. 정보제공자와 평가대상자가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은 평균 9.22(SD = 9.09)년이었다. 정보제공자

에게 평가대상자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을 때 점수의 평균은 5.7이었고 설문지에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였는지 평정한 점수는 평균 6.4였다. 평가대상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관계는 친구 55.1%, 연인/배우자 23.9%, 형제/자매 10.8%, 부모/자녀 7.4%였고 2.8%에 해당하는 기타 관계로는 조부모, 사촌 등이 있었다. 아울러, 60명의 정보제공자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인(평가대상자)에 대한 성격을 평가하도록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을 실시하게 하였다.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자기보고형 200쌍을 모집하면서 얻은 정보제공자 176명의 자료에 54명(설문지 60부 중 6부가 미회수되어 제외됨)의 자료가 추가되어 총 230명의 자료가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때,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은 평균 10.05(SD = 9.50)년이었다. 평가대상자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을 때 점수의 평균은 5.7이었고 설문지에 솔직하게 응답하였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했을 때 점수는 평균 6.3이었다. 평가대상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관계는 친구 50.4%, 연인/배우자 23.5%, 형제/자매 10.9%, 부모/자녀 10.9%였고 4.3%에 해당하는 기타 관계로는 조부모, 사촌 등이 있었다. 아울러, 평가대상자의 경우 만 18세부터 만 72세까지 넓은 연령 범위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연령대별로 18-19세가 5명(2.17%), 20-29세 182명(79.13%), 30-39세 10명(4.35%), 40-49세 10명(4.35%), 50-72세 23명(10%)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정보제공자의 경우 만 18세부터 만 58세까지 넓은 연령 범위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연령대별로 18-19세가 4명(1.74%), 20-29세 201명(87.39%), 30-39세 6명(2.61%), 40-59세 19명(8.26%)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평가대상자와 정보제공자의 성 및 평균연령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DSM-5 성격질문지(PID-5) 정보제공자보고형과 자기보고형 DSM-5 성격질문지(PID-5) 자기보고형은 DSM-5 Section III에서 부적응적인 성격병리를 평가하기 위해 Krueger 등(2012)이 만든 자

Table 1. Sex and Mean Age of Targets and Informants of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Sex	Correlation Analysis of PID-5-IRF & PID-5-SRF				Reliability & Factor Analysis of PID-5-IRF			
	Target (n = 176)		Informant (n = 176)		Target (n = 230)		Informant (n = 230)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N (%)	72 (40.9)	104 (59.1)	64 (36.4)	112 (63.6)	99 (43.0)	131 (57.0)	78 (33.9)	152 (66.1)
Mean age (SD)	25.90 (9.01)		25.72 (7.98)		27.79 (10.80)		25.83 (7.65)	

Note. PID-5-IRF = The Korean Version of the Informant-Report Form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SRF =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Report Form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기보고형 척도이다. 이는 평가대상자 본인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총 220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어 ‘매우 아니다’인 0점부터 ‘매우 그렇다’인 3점까지 평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PID-5 자기보고형을 기반으로 개발된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은 자기보고형의 구조와 문항이 유사하다. 그러나 자기보고형과 달리 정보제공자가 본인의 성격이 아닌 잘 알고 있는 평가대상자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나는(I)”으로 시작하는 문항들의 주어가 생략되어 정보제공자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고 정보제공자가 문장을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매끄럽게 정돈되었다.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은 총 218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매우 아니다’인 0점부터 ‘매우 그렇다’인 3점까지 평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Markon et al., 2013).

두 형식의 PID-5는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 ‘애착상실(Detachment)’, ‘적대성(Antagonism)’, ‘탈억제(Disinhibition)’,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의 5개 영역(Domain)과 25개의 구체적인 성격 특질 양상(Facet)을 평가할 수 있다. 25개 양상에는 감정가변성(Emotional lability), 경직된 완벽주의(Rigid perfectionism), 고집증(Perseveration), 과대성(Grandiosity), 관심추구(Attention seeking), 기만(Deceitfulness), 기이성(Eccentricity), 냉담성(Callousness), 무책임성(Irresponsibility), 무쾌감증(Anhedonia), 복종성(Submissiveness), 분리불안(Separation insecurity), 불안성(Anxiousness), 우울성(Depressivity), 위축(Withdrawal), 위험 감수(Risk taking), 의심성(Suspiciousness), 인지적/지각적 조절곤란(Perceptual dysregulation), 적개심(Hostility), 제한된 정서성(Restricted affectivity), 조종(Manipulativeness), 주의산만(Distractibility), 충동성(Impulsivity), 친밀성 회피(Intimacy avoidance), 특이한 믿음과 경험(Unusual beliefs & experiences)이 포함된다. DSM-5 성격특질 모델에 따르면 몇몇 양상들(예: 적개심, 우울성, 의심성, 제한된 정서성)은 한 영역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에 영문판 PID-5는 영역의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영역에 포함되는 주요 양상들의 점수를 더한 후 그 평균값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Table 2).

성격장애 진단검사(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성격장애 진단검사는 DSM-IV-TR에 포함된 10개의 성격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Seo와 Hwang(2006)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구이다. 총 1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할 수 있는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각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편집성 성격장

Table 2. Personality Trait Domain and Facet Scales Contributing Primarily to Domain

	Facet Scales Contributing Primarily to Domain
Negative Affect	Emotional Lability, Anxiousness, Separation Insecurity
Detachment	Withdrawal, Anhedonia, Intimacy Avoidance
Antagonism	Manipulativeness, Deceitfulness, Grandiosity
Disinhibition	Irresponsibility, Impulsivity, Distractibility
Psychoticism	Unusual Beliefs & Experiences, Eccentricity, Perceptual Dysregulation

에 14문항, 조현성 성격장애 14문항, 조현형 성격장애 12문항, 반사회성 성격장애 19문항, 경계성 성격장애 15문항, 연극성 성격장애 14문항, 자기애성 성격장애 13문항, 회피성 성격장애 11문항, 의존성 성격장애 15문항, 강박성 성격장애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13문항은 2개 성격장애에, 4문항은 3개 성격장애에, 1문항은 4개 성격장애에 중복되어 포함되었다. Seo와 Hwang(2006)에서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내적일관성 Cronbach α 는 .53(강박성)–.75(조현형)였고 이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일관성 Cronbach α 는 .59(연극성)–.78(조현형)이었다.

연구절차

문항 번안 및 선정

이 연구는 Shin과 Hwang(2016)의 한국판 PID-5 자기보고형 개발 연구와 함께 이루어졌다. PID-5 자기보고형(220문항)과 정보제공자보고형(218문항)의 원 문항들을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과정생 3인이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임상심리학 전공 박사 1인이 번안된 문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심리학 박사과정을 마친 이중언어사용자가 다시 검토하였다. 이후 번역전문회사에 의뢰하여 번역된 문항들을 영어로 역번역하였으며 영어로 된 원 문항과 역번역된 문항들을 연구자들 및 이중언어사용자가 문항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검토한 후 연구에 사용할 최종 문항을 결정하였다.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은 자기보고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 문항도 한국판 PID-5 자기보고형과 문항 간 의미가 일치하도록 번안하였다.

한편, 한국판 PID-5 자기보고형 개발과정에서 자기보고형 177번(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의심성 양상)이 내적일관성을 해친다고 판단되어 삭제되면서 2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Shin & Hwang, 2016). 연구에서 최종 사용된 한국판 PID-5 자기보고형은 총 219문항이고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은 총 218문항이다.

도구 제작 및 수집

자기보고형 질문지(총 333문항)는 평가대상자가 본인의 성격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한국판 PID-5 자기보고형과 성격장애 진단검사로 구성하였고, 정보제공자보고형 질문지(총 222문항)는 정보제공자(연구대상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격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과 평가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 4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4개 질문에는 평가대상자와 어떤 관계인지(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연인, 친구/동료, 기타), 실제로 알고 지낸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평가대상자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대상자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질문지에 응답했다고 생각하는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와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했는지는 1점(잘 알지 못함/솔직하게 답하지 못함)부터 7점(매우 잘 알고 있음/매우 솔직하게 답함)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친밀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두 질문에 5점 미만으로 평정한 질문지의 경우 정보제공자가 평가대상자를 잘 알지 못하여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선적으로 응답하거나 평가대상자 및 다른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질문지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정보제공자보고형 질문지는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평가대상자에 대해 평가하도록 구성된 것임을 상기할 수 있도록 첫 장에 관련 문구를 포함하였고, 문항이 시작되는 질문지 상단에 평가대상자와는 상의하지 말고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두었다(Supplementary materials 1, 2).

이 연구는 연구개시 이전에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CBNU-201410-BM-095-01). 먼저 평가대상자에게 자기보고형 질문지와 정보제공자보고형 질문지를 배부한 경우, 자기보고형은 평가대상자 본인이 실시하게 하였고 정보제공자보고형은 적어도 1년 이상 서로 알고 지냈고 평가대상자가 판단하기에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제공자에게 질문지를 전달하게 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해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가대상자는 정보제공자가 작성한 질문지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내용이 오염되거나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밀봉할 수 있는 봉투를 정보제공자보고형과 함께 배부하여 평가대상자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질문지 작성 후 바로 밀봉할 수 있게 하였다. 정보제공자가 직접 정보제공자보고형 질문지를 받는 경우는 정보제공자가 판단하기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평가대상자에 대해 평가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마찬가지로 밀봉할 수 있는 봉투를 함께 제공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정보제공자 및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문서 및 구두로 이 연구의 실시 의도 및 목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질문지 작성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하도록 당부하였고 특히 평가대상자와 정보제공자가 서로 볼 수 없도록 다른 공간에서 실시하게 하였다. 작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 회수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정보제공자보고형은 작성자가 질문지를 봉투에 넣어 봉한 상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게 하였지만 불가피한 극히 일부의 경우 평가대상자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이 경우는 정보제공자가 평가대상자가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작성하였고 작성한 질문지는 바로 밀봉하였음을 다시 확인받았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40분 정도였으며, 작성을 완료한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분석방법

연구 분석에는 SPS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Expectation-Maximization(EM) 추정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평가대상자와 정보제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성격 특질 양상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문항 제거 시 α 계수를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주축요인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 방식의 경우 추출하고자 하는 요인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사각회전 중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된 Promax($\kappa=4$) 방식을 사용하였다(Cho, 2007; Tucker & MacCallum, 1997). 아울러,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자기보고형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위의 영역들과 하위의 양상들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영역 및 양상과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통해 산출한 성격장애 점수의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어떤 영역 및 양상이 어떤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 과

신뢰도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내적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양상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영문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α 계수와 비

Table 3.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orean Version of PID-5-IRF

Personality Trait Facet	Number of items	Cronbach's alpha (α)		
		The Korean Version of PID-5-IRF	The English Version of PID-5-IRF (Markon et al., 2013)	
		Normative Sample (N=230)	Normative Sample (N=320)	Elevated-risk Community Sample (N=221)
Anhedonia	8	.82	.89	.84
Anxiousness	8	.88	.91	.92
Attention Seeking	8	.89	.93	.92
Callousness	14	.89	.94	.92
Deceitfulness	10	.91	.93	.93
Depressivity	14	.87	.94	.94
Distractibility	9	.87	.92	.90
Eccentricity	13	.94	.95	.95
Emotional Lability	7	.89	.90	.92
Grandiosity	6	.81	.90	.89
Hostility	10	.86	.93	.93
Impulsivity	6	.87	.85	.87
Intimacy Avoidance	6	.79	.87	.84
Irresponsibility	7	.75	.85	.82
Manipulativeness	5	.76	.82	.89
Perceptual Dysregulation	12	.86	.90	.90
Perseveration	9	.84	.89	.89
Restricted Affectivity	7	.73	.84	.85
Rigid Perfectionism	10	.89	.92	.89
Risk Taking	14	.86	.88	.87
Separation Insecurity	7	.86	.87	.88
Submissiveness	4	.72	.72	.74
Suspiciousness	6	.72	.82	.81
Unusual Beliefs & Experiences	8	.80	.82	.89
Withdrawal	10	.90	.93	.90
Mean		.84	.88	.88

교하였다(Table 3). 성격 특질 양상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72(복중성)에서 .94(기이성) 범위였고, 평균은 .84였다. 문항 제거 시 α 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대다수 양상에서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고 문항 제거 시 α 계수가 상승하는 문항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와 소수점 셋째 자리 수준의 미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타당도

요인구조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230명의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의 크기, Kaiser-Meyer-Olkin(KMO)의 표준적합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그리고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확보된 참가자의 수는 230명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Comrey와 Lee(1992)의 기준에 따르면 약 100개 이하의 표본 크기는 요인분석에 적합하지 않고 200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Lee(2000)는 200개 이상이면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는 KMO = .8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3,978.898($df=300$), $p < .001$ 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KMO 측정치는 .9 이상일 경우 상당히 좋고 .8 이상일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하므로(Kaiser, 1974) 이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상관행렬의 사용 적절성을 평가하였을 때 변인 간에 충분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요인의 수를 고정하지 않고 스크리도표(Scree plot) 및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제안된 요인의 수는 여섯 개였다. 6 요인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25개 양상 중 경직된 완벽주의와 충동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PID-5-IRF

Domain	Facet	Factor				
		1	2	3	4	5
Negative Affect	Anxiousness	.89	-.04	-.04	.02	.04
	Depressivity	.64	.27	-.14	.29	-.06
	Emotional Lability	.54	-.18	.35	.19	-.09
	Perseveration	.51	.13	.12	.13	.22
	Separation Insecurity	.49	-.29	.36	.06	.01
	Suspiciousness	.42	.30	.34	-.06	.04
	Submissiveness	.28	-.07	-.24	<u>.44</u>	.09
Detachment	Withdrawal	.16	.81	.06	-.14	-.04
	Anhedonia	.34	.65	-.07	.14	-.06
	Restricted Affectivity	-.20	.65	.05	-.11	.34
	Intimacy Avoidance	-.08	.59	-.17	.01	.04
Antagonism	Hostility	.18	.03	.84	.04	-.18
	Grandiosity	.12	-.04	.83	-.22	.00
	Deceitfulness	.04	-.02	.80	.11	-.02
	Callousness	-.23	.39	.79	.03	.00
	Manipulativeness	-.07	-.10	.76	-.06	.15
	Attention Seeking	.07	-.37	.57	-.06	.25
	Disinhibition	Distractibility	.15	-.01	-.08	.75
Impulsivity		-.08	-.21	.22	.65	.14
Irresponsibility		-.10	.23	.32	.57	-.05
Rigid Perfectionism		<u>.49</u>	.12	.01	-.42	.31
Risk Taking		-.41	.00	.17	.27	<u>.42</u>
Psychoticism	Unusual Beliefs & Experiences	.12	.06	.01	.06	.73
	Perceptual Dysregulation	.29	.08	-.05	.16	.66
	Eccentricity	.13	.10	.14	.11	.55

Note. The factor loadings of facets that properly matched Each domain of the DSM-5 Personality Trait Model are shown in shaded, and those that are not, are underlined with the highest factor loadings.

성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65, -.37로 요인 6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충동성은 요인 4에서도 적절한 요인부하량(.35)을 보였으며 성격 특질 모델을 고려했을 때에도 요인 4로 구성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경직된 완벽주의만 다섯 가지 요인에 포함되지 않고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DSM-5에서 제안하는 성격 특질 모델을 바탕으로 해석 가능성과 내용타당도를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5개로 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인부하량의 경우 Stevens(1992)와 Seong과 Si(2014)의 제안에 따라 각 양상의 요인부하량이 .4 이상일 때 그 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인 1은 불안성, 우울성, 감정 가변성, 고집증, 분리불안, 의심성 양상 순으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이는 DSM-5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부정적 정서성’ 영역과 잘 부합하였다. 복종성 양상은 DSM-5 모델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고려하

면 요인 1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연구결과에서는 요인 4에서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요인 2는 위축, 무쾌감증, 제한된 정서성, 친밀성 회피 양상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이는 ‘애착상실’ 영역에 잘 부합하였다. 요인 3은 적개심, 과대성, 기만, 냉담성, 조종, 관심추구 양상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이는 ‘적대성’ 영역에 잘 부합하였다. 요인 4는 주의산만, 충동성, 무책임성, 복종성, 경직된 완벽주의 양상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여서 DSM-5 모델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탈억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된 완벽주의 양상은 요인 1에서의 부하량이 더 높긴 하지만 요인 4에서도 .4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고 DSM-5의 이론적 근거를 고려하였을 때 요인 4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위협 감수 양상은 DSM-5 모델과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요인 4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요인 4에서의 부하량이 .27로 낮게 나타났다. 요인 5는 특이한 믿음과 경험, 인지적/지각적 조절곤란, 기이성, 위협 감수 양상 순으로 높은 부하

량을 보였고 위험 감수를 제외하고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자기보고형 일치도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자기보고형의 영역 및 양상의 일치도는 .13(과대성)~.53(위축) 범위로, 일치도의 평균은 .32로 나타났다. 영역에서는 애착상실($r = .55, p < .001$)이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고 부정적 정서성($r = .37, p < .001$)과 탈억제($r = .36, p <$

.001)가 보통 수준의 일치도를, 정신병적 경향성($r = .26, p < .001$)과 적대성($r = .21,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양상에서는 과대성을 제외한 위축, 친밀성 회피, 감정 가변성, 제한된 정서성, 관심추구, 무쾌감증, 위험 감수, 경직된 완벽주의, 충동성, 우울성, 고집증, 무책임성, 분리불안, 불안성, 적개심, 기이성, 의심성, 냉담성, 주의산만이 $r = .28$ ~.53 범위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기만이 $r = .20$ 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

Table 5. Self-Informant Correlations

	Correlations of the Korean Version of PID-5		Correlations of the English Version of PID-5 (Markon et al., 2013)	
	Normative Sample (176 Pairs)		Normative Sample (40 Pairs)	Elevated-risk Community Sample (221 Pairs)
Facet				
Anhedonia	.42***		.50	.44
Anxiousness	.31***		.44	.45
Attention Seeking	.42***		.48	.25
Callousness	.28***		.67	.42
Deceitfulness	.20**		.48	.29
Depressivity	.32***		.54	.54
Distractibility	.28***		.51	.49
Eccentricity	.30***		.44	.25
Emotional Lability	.45***		.60	.32
Grandiosity	.13		.29	.29
Hostility	.31***		.46	.33
Impulsivity	.36***		.52	.50
Intimacy Avoidance	.52***		.52	.35
Irresponsibility	.31***		.67	.51
Manipulativeness	.19*		.34	.26
Perceptual Dysregulation	.18*		.30	.23
Perseveration	.31***		.21	.44
Restricted Affectivity	.44***		.55	.27
Rigid Perfectionism	.39***		.58	.34
Risk Taking	.42***		.56	.43
Separation Insecurity	.31***		.65	.39
Submissiveness	.15*		.23	.20
Suspiciousness	.30***		.40	.41
Unusual Beliefs & Experiences	.17*		.21	.18
Withdrawal	.53***		.55	.31
Mean	.32		.47	.36
Domain				
Negative Affect	.37***		.48	.30
Detachment	.55***		.45	.25
Antagonism	.21**		.54	.31
Disinhibition	.36***		.62	.40
Psychoticism	.26***		.38	.18
Mean	.35		.49	.29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종, 인지적/지각적 조절곤란, 특이한 믿음과 경험, 복종성이 $r = .15-.19$ 범위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었다. 다만, 영문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 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미국 일반인 표본(.47) 및 위험군(.36)을 대상으로 확인한 일치도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의 자기보고식-정보제공자보고형의 일치도가 전반적으로 약간 낮은 편이었다. 영역에서는 한국인 표본(.35)이 미국의 위험군 표본(.29)보다는 높고 일반인 표본(.49)보다는 낮은 일치도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일치도가 과대성 양상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허용가능한 범위로 판단된다(Table 5).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과 성격장애 진단검사 간 상관관계 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성격검사 중 타당화된 정보제공자보고형 검사가 없어 그 대안으로 자기보고형 응답자가 실시한 성격장애 진단검사와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영역 및 양상들이 실제 성격장애를 잘 설명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격장애 진단검사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조현형(Schizotypal) 성격장애’는 정신병적 경향성($r = .31, p < .001$) 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핵심 양상에서는 기이성($r = .35, p < .001$), 의심성($r = .28, p < .001$), 인지적/지각적 조절곤란($r = .26, p < .01$), 특이한 믿음과 경험($r = .20,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중요한 타인과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리불안($r = .05, n.s.$) 양상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한편 제한된 정동이 특징적인 조현형 성격장애가 제한된 정서성($r = .08, n.s.$)과 낮은 상관을 보이고 감정 가변성($r = .28, p < .001$)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조현형 성격장애가 기분의 동요가 심한 경계성 성격장애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두 성격장애가 동시에 진단되기도 한다는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기술을 고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짐작된다. ‘반사회성(Antisocial) 성격장애’는 적대성($r = .29, p < .001$), 탈억제($r = .27, p < .001$) 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핵심 양상인 냉담성($r = .32, p < .001$), 적개심($r = .31, p < .001$), 조종($r = .30, p < .001$), 충동성($r = .30, p < .001$), 기만($r = .24, p < .01$), 위협 감수($r = .21, p < .01$), 무책임성($r = .20, p < .01$)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Samuel과 Widiger(2008)에 따르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낮은 양심성(Conscientiousness)의 측면을 반영하며, 이 연구결과에서 극단적 양심성의 측면인 경직된 완벽주의 양상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낮은 상관을 보여주었다($r = -.07, n.s.$). 또한,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을 따르지 않는 특징과 관련하여 복종성 양상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

($r = .02, n.s.$). ‘경계선(Borderline) 성격장애’는 적대성($r = .24, p < .01$), 부정적 정서성($r = .22, p < .01$), 탈억제($r = .20, p < .01$) 영역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핵심 양상인 적개심($r = .34, p < .001$), 감정 가변성($r = .28, p < .001$), 충동성($r = .22,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심한 감정기복이 특징인 경계성 성격장애는 제한된 정서성($r = -.01, n.s.$) 양상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자기애성(Narcissistic) 성격장애’는 적대성($r = .20, p < .01$) 영역과 핵심 양상인 관심추구($r = .28,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회피성(Avoidant) 성격장애는 애착상실($r = .39, p < .001$), 부정적 정서성($r = .15, p < .05$) 영역과 핵심 양상인 친밀성 회피($r = .34, p < .001$), 위축($r = .32, p < .001$), 무쾌감증($r = .31, p < .001$), 불안성($r = .23, p < .01$)과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한편, 회피성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고 비판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는 특징이 있는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 연구결과에서도 과대성($r = -.11, n.s.$) 양상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고 위협 감수($r = -.16, p < .05$) 양상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강박성(Obsessive-compulsive) 성격장애’는 탈억제($r = -.21, p < .01$) 영역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애착상실($r = .16, p < .05$)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핵심 양상인 경직된 완벽주의($r = .36, p < .001$), 친밀성 회피($r = .16, p < .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강박성 성격장애는 타인에게 자신의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며 지나치게 규칙이나 계획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는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맞추는 복종성($r = .07, n.s.$) 양상과 낮은 상관관계를, 충동성($r = -.30, p < .001$) 양상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DSM-5 Section III에 포함되지 않아 핵심 양상과 영역이 제안되지 않은 4개의 성격장애(편집성, 분열성, 연극성,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타인을 근거 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특징인 ‘편집성(Paranoid) 성격장애’는 애착상실($r = .28, p < .001$) 영역과 양상 중 의심성($r = .27, p < .001$), 적개심($r = .16, p < .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분리불안($r = -.02, n.s.$), 위협 감수($r = -.06, n.s.$) 양상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관계에 흥미가 없고 냉담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이 특징인 ‘조현성(Schizoid) 성격장애’는 애착상실($r = .50, p < .001$) 영역과 양상 중 위축($r = .48, p < .001$), 무쾌감증($r = .40, p < .001$), 친밀성 회피($r = .35, p < .001$), 제한된 정서성($r = .28, p < .001$)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냉담성($r = .18, p < .05$)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감정 가변성($r = .13, n.s.$) 양상과 낮은 상관을,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the Korean Version of PID-5-IRF Scale Scores and 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Scores

Facet	Personality Disorder included in DSM-5 Section III						Personality disorder not included in DSM-5 Section III			
	Schizotypal	Antisocial	Borderline	Narcissistic	Avoidant	Obsessive-compulsive	Paranoid	Schizoid	Histrionic	Dependent
Anhedonia	.13	.06	.06	-.13	.31***	.16*	.23**	.40***	-.17*	.14
Anxiousness	.18*	-.06	.11	.02	.23**	.23**	.21**	.15*	.04	.32***
Attention Seeking	.17*	.25**	.26***	.28***	-.22**	-.07	-.04	-.20**	.29***	.04
Callousness	.17*	.32***	.23**	.05	.05	-.13	.13	.18*	.03	.02
Deceitfulness	.19*	.24**	.24**	.19*	-.04	-.07	.05	-.03	.14	.08
Depressivity	.15*	-.01	.07	-.02	.30***	.14	.21**	.26**	.00	.31***
Distractibility	.12	.16*	.11	.03	-.01	-.13	.02	.05	.02	.07
Eccentricity	.35***	.18*	.23**	.09	.14	.02	.12	.11	.05	.16*
Emotional Lability	.28***	.17*	.28***	.09	.18*	.01	.18*	.13	.21**	.27***
Grandiosity	.16*	.22**	.14	.14	-.11	-.09	.01	-.01	.08	-.03
Hostility	.25**	.31***	.34***	.12	.08	-.11	.16*	.10	.17*	.12
Impulsivity	.14	.30***	.22**	.05	-.13	-.30***	-.09	-.04	.12	.00
Intimacy Avoidance	.09	-.07	.03	-.10	.34***	.16*	.21**	.35***	-.13	.11
Irresponsibility	.12	.20**	.17*	.11	-.01	-.08	.01	.12	.07	.08
Manipulativeness	.18*	.30***	.26***	.19*	-.08	-.04	.09	-.09	.17*	.09
Perceptual Dysregulation	.26**	.22**	.21**	.14	.15	.05	.14	.15	.03	.12
Perseveration	.26***	.12	.18*	.01	.18*	.12	.18*	.23**	-.01	.17*
Restricted Affectivity	.08	.11	-.01	-.09	.16**	.10	.17*	.28***	-.24**	-.09
Rigid Perfectionism	.14	-.07	.02	-.02	.28***	.36***	.21**	.22**	.00	.19*
Risk Taking	.05	.21**	.09	.02	-.16*	-.16*	-.06	-.05	.01	-.17*
Separation Insecurity	.05	.10	.13	.16*	-.05	-.10	-.02	-.15	.25**	.19*
Submissiveness	.09	.02	.07	.05	-.06	.07	.01	-.01	.09	.13
Suspiciousness	.28***	.12	.17*	.01	.25**	.10	.27***	.33***	-.02	.21**
Unusual Beliefs & Experiences	.20**	.17*	.15	.08	.05	.01	.08	.04	.01	.07
Withdrawal	.13	.04	.04	-.13	.32***	.07	.25**	.48***	-.25**	.02
Domain										
Negative Affect	.22**	.09	.22**	.11	.15*	.06	.16*	.06	.21**	.32***
Detachment	.14	.01	.05	-.15	.39***	.16*	.28***	.50***	-.23**	.11
Antagonism	.20**	.29***	.24**	.20**	-.09	-.08	.06	-.05	.15*	.05
Disinhibition	.15*	.27***	.20**	.08	-.07	-.21**	-.03	.04	.08	.06
Psychoticism	.31***	.21**	.22**	.11	.13	.03	.13	.11	.04	.14

Note.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facets and domains corresponding to diagnostic criteria for personality disorders included in DSM-5 Section III are shown in shaded, and those discriminated against each personality disorder are underlined. If personality disorders are not included in DSM-5 Section III,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facets and domains predicted as a major feature of each Personality disorder are shown in shaded, and those discriminated against each personality disorder are underlined.

* $p < .05$, ** $p < .01$, *** $p < .001$.

관심추구($r = -.20, p < .01$) 양상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과도한 감정 표현이 특징인 ‘연극성(Histrionic) 성격장애’는 애착상실($r = -.23, p < .01$) 영역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부정적 정서성($r = .21,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양상 중 관심추구($r = .29, p < .001$), 분리불안($r = .25, p < .01$), 감정 가변성($r = .21, p < .01$)과 상대적으

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위축($r = -.25, p < .01$), 제한된 정서성($r = -.24, p < .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친밀성 회피($r = -.13, n.s.$)와 낮은 상관을 보였다. 타인에게 의존하고 복종적이며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 특징인 ‘의존성(Dependent) 성격장애’는 부정적 정서성($r = .32, p < .001$) 영역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양상 중 불안성($r = .32, p < .001$), 우울

성($r = .31, p < .001$), 감정 가변성($r = .27, p < .001$), 분리불안($r = .19, p < .05$)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의존성 성격장애는 타인으로부터 확신이나 충고 없이는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언제나 자신을 돌봐주고 의존할 수 있는 존재를 찾는다는 특징이 있는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 연구결과에서도 충동성($r = .00, n.s.$), 친밀성 회피($r = .11, n.s.$) 양상과 낮은 상관관을 보였고 위협 감수($r = -.17, p < .05$) 양상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였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이 우리나라 성인들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원 문항을 우리말로 번역한 뒤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여 원 문항과 동일한 의미로 변환되었는지 확인하였고 정보제공자보고형과 자기보고형 문항이 서로 의미가 유사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후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에는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내적일관성을 검토하고 요인구조를 살펴보았으며 한국판 PID-5 자기보고형과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성격 특질 영역 및 양상들이 어떤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고 각 성격장애 특징과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첫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영역 및 양상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을 때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신뢰도 계수는 .72(복중성)에서 .94(기이성) 범위로 나타났고 내적 일치도 평균은 .8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영문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신뢰도 계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신뢰도 계수가 가장 낮은 양상이 복중성, 가장 높은 양상이 기이성인 점이 일치했다. 전반적으로 영문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에서 내적일관성 수준이 약간 더 높았으나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 역시 상당히 높은 내적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요인구조는 DSM-5에 제시된 성격 특질 모델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요인의 수와 3개 양상(facet)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양상들은 각 영역에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가 선행연구(5개 요인)와 다르게 6개 요인으로 추출된 점과 요인의 수를 5개로 고정하고 분석했을 때 3개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던 이

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1) 성격병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구성과 해석이 다를 가능성, 2) 번역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 3) 연구 표본의 특성일 가능성, 4) 우연적 변산의 가능성. 만약 1)이 분명하다면 요인 구성을 선행연구와 다르게 할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2)~4)의 가능성을 먼저 배제할 필요가 있다. 배제에 관한 결정은 자료의 1회적인 수집과 분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추후에 새로운 표집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다. 만약 한국의 자료에 의거해서 요인 구성을 선행연구와 다르게 하면 한국인의 성격병리를 보다 잘 분류할 수 있겠지만 해외 자료와의 비교 연구에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역으로 선행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한다면 한국인의 성격병리를 분류하는 데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지만 해외 자료와의 비교에는 유리한 점이 있다. 요인 구성을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DSM-5 성격 특질 모델 및 선행연구의 요인 구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3개 양상이 기대되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더 높은 부하량을 보인 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먼저 복중성은 양상들 중 가장 적은 수의 문항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중성을 안정적으로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제공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편이다.”와 같은 복중성 문항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타인과 다를 때도 타인에게 맞춘다는 것이 ‘탈역제’ 특징처럼 앞으로 발생할 결과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외적 자극에 의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직된 완벽주의 양상은 원래 포함되어야 할 탈역제 영역에서도 높은 부하량을 보였지만 부정적 정서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완벽주의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Markon et al., 2013).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 Hewitt와 Flett(1991)의 연구에서 완벽주의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완벽주의는 우울(Bergman, Nyland, & Burns, 2007; 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Enns & Cox, 1999), 불안(Egan, Wade, & Shafran, 2011; Flett, Hewitt, & Dyc, 1989; Naragon-Gainey & Watson, 2011), 극도의 양심성(Samuel & Widiger, 2008; Saulsman & Page, 2004), 사고 장애(Chmielewski & Watson, 2008), 조현성(schizoid) 성격(Brodsky, 1988)과 같은 다양한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 감수는 탈역제 영역에 해당하는 양상이지만 정신병적 경향성과 부정적 정서성 영역에도 높은 부하량을 보였는데 한국판 PID-5 자기보고형 요인구조에

서도 위험 감수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인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Shin & Hwang, 2016). 이를 보면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잠재적으로 자기를 해치는 파괴적 활동을 하는 것이 타인에게는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판단되기보다 특이한 사람 혹은 불안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한국판 PID-5의 일치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영문판의 일치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연구에 표집된 정보제공자와 평가대상자의 관계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영문판 PID-5 일치도 분석에 표집된 정보제공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40쌍 중 60%는 배우자나 연인이었고 32.5%가 가족이나 친척이었으며 2.5%가 친구, 5%가 기타에 해당하였다(Markon et al., 2013). 반면 이 연구의 일치도 분석에 표집된 정보제공자 유형은 전체 176쌍 중 55.1%가 친구였고 23.9%가 배우자나 연인, 10.8%는 형제/자매, 7.4%는 부모/자녀, 2.8%가 기타에 해당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는 표본의 크기는 더 컸으나 전체 비율을 고려했을 때 혼인 및 가족관계의 자료보다 친구관계의 자료가 더 많았다. 정보제공자 유형을 배우자와 친구로 구분하여 성격에 관한 일치도를 검토한 Coolidge, Burns와 Mooney(1995)에서는 혼인관계(mean $r = .51$)인 경우가 친구관계(mean $r = .36$)인 경우보다 더 높은 일치도를, Watson, Hubbard과 Wiese(2000)에서는 혼인관계(mean $r = .46$), 연인관계(mean $r = .33$), 친구관계(mean $r = .30$) 순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알고 지낸 기간도 일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문판 PID-5 일치도에 표집된 평가대상자와 정보제공자의 알고 지낸 기간은 평균 28.98년($SD = 14.81$)으로 이 연구에서 표집된 평가대상자와 정보제공자의 알고 지낸 기간(평균 10.05년, $SD = 9.50$)보다 더 길었다.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일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iesanz, West, & Millevoi, 2007; Colvin & Funder, 1991; Connolly, Kavanagh, & Viswesvaran, 2007; Funder & Colvin, 1988; Funder, Kolar, & Blackman, 1995; Paulhus & Bruce, 1992; Paunonen, 1989; Watson & Clark, 1991).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과 타인이 자기를 지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Jin, Kwon, Kwon, & Hwang, 2010) 정보제공자보고형과 자기보고형의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판 PID-5의 일치도는 영문판 PID-5의 일치도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성격 Big Five 모델을 바탕으로 성격에 대한 자기보고형-정보제공자보고형의 일치도를 살펴본 Vazire와 Carlson(2010)에서 제시한 연구들과는 유사한 정도의 일치도를 보여주었고(Asendorpf & Ostendorf, 1998; Bernieri, Zuck-

erman, Koestner, & Rosenthal, 1994; Biesanz & West, 2004; Funder et al., 1995; Hayes & Dunning, 1997; Malloy, Albright, Kenny, Agatstein, & Winquist, 1997), 이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 결과가 특별히 낮다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이 일치도가 비교적 낮은 것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였지만, 적대성 영역이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이고 애착상실 영역이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주로 주장적이거나 적대적 태도를 보이거나 위축되고 회피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는 점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적대성 영역에서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인 것은 자신이 타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과대성 양상) 거짓말(기만 양상) 등이 타인과 상호작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사소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타인보다는 본인이 크게 지각하고 부정적인 자기 관점을 갖기 때문일 수 있다(Swann, 1997).

넷째,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양상 및 영역과 성격장애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이 높은 양상 및 영역이 각각의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 및 양상은 DSM-5에서 제안한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M-5 Section III에 포함된 6개 성격장애의 상관 외에도 제외된 4개의 성격장애와 어떤 병리적 성격 특질이 관련이 있고 이 관련성이 이론적 배경과 부합하는지도 검토하였다. 대체로 유의한 상관계수가 .3 수준으로 매우 높지는 않으나 각 성격장애의 특징인 양상과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그렇지 않은 양상과 영역은 유의하지 않은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기 때문에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진단기준에 포함된 양상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양상들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 연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격장애 성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성격장애 진단검사가 자기보고형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자보고형과의 상관을 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자와 정보제공자 간 관계 유형(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연인, 친구/동료, 기타)을 비슷한 규모로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 연구에서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응답자는 절반 이상이 친구/동료로 구성되었다. 사회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은 많은 시간을 친구/동료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정보제공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 장면에서 면담이나 정보제공자보고형에 응답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부모나 배우자인 반면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답 비

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추후에는 국내에서 어떤 정보제공자 유형이 자기보고형과 가장 비슷하게 보고하는지 확인해보고 정보 제공자 유형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정보제공자의 상당수는 원래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제공자들은 비교적 알고 지낸 기간이 짧은 친구(1-2년)인 경우도 일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함께 살고 있거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들을 정보제공자로 선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형과 정보제공자보고형에서 병리적 성격 특질의 극단치 값이 드물었고 이 때문에 상관의 크기가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 성격장애 환자를 포함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추후 교차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새로운 집단을 모집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DSM-5에서 병리적 성격 평가를 위해 제작한 PID-5의 정보제공자보고형을 우리말로 번안하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많은 자기보고형 검사가 개발되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자기보고형의 한계를 보완해줄 정보제공자보고형 검사의 필요성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정보제공자보고형의 분야 연구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DSM-5의 성격 특질 모델을 반영하여 만든 PID-5는 초기 질문 자료로 사용되어 부적응적인 성격 영역과 양상을 찾고 치료 과정에서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격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발현되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때 성격에 대한 타인의 인식은 성격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Whang & Lee, 2010).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은 평가대상자 자신이 자각하는 성격과 상대방이 지각하고 있는 평가대상자의 성격의 차이에 대해 파악하게 함으로써 부부치료, 가족치료, 대인관계 치료 등에서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부나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타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성격이 그 관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는 자신의 지각하고 있는 성격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지각하고 있는 성격을 함께 고려할 때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Jang & Hwang, 2012). 또한, 상대방이 지각하는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편견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 만족을 예측할 수 있다(Luo & Snider, 2009). 앞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이 검사가 임상 장면과 연구 장면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sendorpf, J. B., & Ostendorf, F. (1998). Is self-enhancement healthy? Conceptual, psychometric,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955-966.
- Bergman, A. J., Nyland, J. E., & Burns, L. R. (2007). Correlates with perfectionism and the utility of a dual process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389-399.
- Bernieri, F. J., Zuckerman, M., Koestner, R., & Rosenthal, R. (1994). Measuring person perception accuracy: Another look at self-other agre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367-378.
- Biesanz, J. C., & West, S. G. (2004). Towards understanding assessments of the Big Five: Multitrait-multimethod analyses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cross measurement occasion and type of observer. *Journal of Personality*, 72, 845-876.
- Biesanz, J. C., West, S. G., & Millevoi, A. (2007). What do you learn about someone over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acquaintance and consensus and self-other agreement in judgment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19-135.
- Broday, S. F. (1988). Perfectionism and millon basic personality patterns. *Psychological Reports*, 63, 791-794.
- Carlson, E. N. (2013). Honestly arrogant or simply misunderstood? Narcissists' awareness of their narcissism. *Self and Identity*, 12, 259-277.
- Carlson, E. N., Vazire, S., & Oltmanns, T. F. (2013). Self-other knowledge asymmetries in personality 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81, 155-170.
- Chmielewski, M., & Watson, D. (2008). The heterogeneous structure of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Item-level factors of the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their association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ymptoms, dissociative tendencies, and normal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 364-376.
- Cho, E. S. (2007).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1986-2006.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22, 179-208.
- Cho, S. H., Lee, S. J., & Kim, J. O. (2008). Comparison of malingering 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pre-trial forensic offenders determined as normal and other diagnoses: Based on MMPI-2 profil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 45-58.

- Clifton, A., Turkheimer, E., & Oltmanns, T. F. (2005). Self- and peer perspectives on 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 and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logical Assessment, 17*, 123-131.
- Colvin, C. R., & Funder, D. C. (1991). Predicting personality and behavior: A boundary on the acquaintanceship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84-894.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nnelly, B. S., & Ones, D. S. (2010). An other perspective in personality: Meta-analytic integration of observers' accuracy and predictive validity. *Psychological Bulletin, 136*, 1092-1122.
- Connolly, J. J., Kavanagh, E. J., & Viswesvaran, C. (2007). The convergent validity between self and observer ratings of personality: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5*, 110-117.
- Coolidge, F. L., Burns, E. M., & Mooney, J. A. (1995). Reliability of observer ratings in the assessment of personality disorders: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22-28.
- Duckworth, A. L., & Kern, M. L. (2011). A meta-analysis of the convergent validity of self-control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 259-268.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437-453.
- Egan, S. J., Wade, T. D., & Shafran, R. (2011). Perfectionism as a transdiagnostic process: A clin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203-212.
- Enns, M. W., & Cox, B. J. (1999).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symptom sever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783-794.
- Flett, G. L., Hewitt, P. L., & Dyck, D. G. (1989). Self-oriented perfectionism, neuroticism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731-735.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under, D. C., & Colvin, C. R. (1988). Friends and strangers: Acquaintanceship, agreement, and the accuracy of personality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49-158.
- Funder, D. C., Kolar, D. C., & Blackman, M. C. (1995). Agreement among judges of personality: Interpersonal relations, similarity, and acquaintance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656-672.
- Grove, W. M., & Tellegen, A. (1991). Problem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5*, 31-41.
- Hayes, A. F., & Dunning, D. (1997). Construal processes and trait ambiguity: Implications for self-peer agreement in personality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664-677.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irschfeld, R. M. (1993). Personality disorders: Definition and diagnosi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Suppl. 1), 9-17.
- Hogan, R. (1998). Reinventing personali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 1-10.
- Hwang, S. T., Yoon, H., & Lee, S. H.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777-789.
- Jang, J. Y., & Hwang, S. T. (2012). The relationships of between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 133-148.
- Jin, H. Y., Kwon, E. J., Kwon, J. E., & Hwang, S. T. (2010). Comparison of self- and peer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problems according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 211-230.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 Klein, D. N. (2003). Patients' versus informants' reports of personality disorders in predicting 7 1/2-year outcome in out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s. *Psychological Assessment, 15*, 216-222.
- Klonsky, E. D., Oltmanns, T. F., & Turkheimer, E. (2002). Informant reports of personality disorders: Relation to self-report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 300-311.
- Krueger, R. F., Derringer, J., Markon, K. E., Watson, D., & Skodol, A. E. (2012). Initial construction of a maladaptive personality trait mode and inventory for DSM-5. *Psychological Medicine, 42*, 1879-1890.
- Lee, S. M. (2000). *Basis of factor analysis*. Seoul, Korea: Kyoyookbook.
- Luo, S., & Snider, A. G. (2009). Accuracy and biases in newlyweds' perceptions of each other: Not mutually exclusive but mutually beneficial. *Psychological Science, 20*, 1332-1339.
- Malloy, T. E., Albright, L., Kenny, D. A., Agatstein, F., & Winquist, L. (1997).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meta-perception in nonoverlapping so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90-398.
- Markon, K. E., Quilty, L. C., Bagby, R. M., & Krueger, R. F. (2013).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an informant-report form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Assessment, 20*, 370-383.
- McGrath, R. E., Mitchell, M., Kim, B. H., & Hough, L. (2010). Evidence for response bias as a source of error variance in applied assessment. *Psychological Bulletin, 136*, 450-470.

- Naragon-Gainey, K., & Watson, D. (2011). Clarifying the dispositional basis of social anxiety: A hierarchical perspect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926-934.
- Oh, I. S., Wang, G., & Mount, M. K. (2011). Validity of observer rating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rai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6*, 762-773.
- Olino, T. M., & Klein, D. N. (2015). Psychometric comparison of self- and informant-reports of personality. *Assessment, 22*, 655-664.
- Oltmanns, T. F., Gleason, M. E. J., Klonsky, E. D., & Turkheimer, E. (2005). Meta-perception for 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 Do we know when other think that we are difficult?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4*, 739-751.
- Oltmanns, T. F., & Turkheimer, E. (2009). Person perception and personality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 32-36.
- Paulhus, D. L., & Bruce, M. N. (1992). The effect of acquaintanceship on the validity of personality impression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816-824.
- Paunonen, S. V. (1989). Consensus in personality judgments: Moderating effects of target-rater acquaintanceship and behavior observ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823-833.
- Rushton, J. P., Brainerd, C. J., & Pressley, M. (1983). Behavioral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ity: The principle of aggreg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4*, 18-38.
- Samuel, D. B., & Widiger, T. A. (2008).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ive-factor model and DSM-IV-TR personality disorders: A facet level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326-1342.
- Saulsman, L. M., & Page, A. C. (2004). The five-factor model and personality disorder empirical literature: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1055-1085.
- Seo, J. S., & Hwang, S. T.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273-288.
- Seong, T. J., & Si, K. J. (2014). *Research Methodology*. Seoul, Korea: Hakjisa.
- Shin, S. Y., & Hwang, S. T. (201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0*, 1-24.
- Stevens, J. P. (199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wann, W. B. Jr. (1997). The trouble with change: Self-verification and allegiance to the self. *Psychological Science, 8*, 177-180.
- Tucker, L. R., & MacCallum, R. C. (199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npublished manuscript,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Vazire, S. (2006). Informant reports: A cheap, fast, and easy method for personality assess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472-481.
- Vazire, S. (2010). Who knows what about a person? The self-other knowledge asymmetry (SOKA)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 281-300.
- Vazire, S., & Carlson, E. N. (2010). Self-knowledge of personality: Do people know themselve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4*, 605-620.
- Vazire, S., & Carlson, E. N. (2011). Other sometimes know us better than we know ourselv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 104-108.
- Watson, D., & Clark, L. A. (1991). Self- versus peer ratings of specific emotional traits: Evidence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27-940.
- Watson, D., Hubbard, B., & Wiese, D. (2000). Self-other agreement in personality and affectivity: The role of acquaintanceship, trait visibility, and assumed simila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546-558.
- Westen, D. (1997). Divergences between clinical and research methods for assessing personality disorder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the evolution of Axis II.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895-903.
- Westen, D., & Heim, A. K. (2003). Disturbances of self and identity in personality disorders.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643-66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Whang, S. M., & Lee, R. H. (2010). Personality as types of self-perception of others' evaluation: How Koreans perceive persona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0*, 121-143.

국문초록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 정보제공자보고형(K-PID-5-IRF)의 신뢰도와 타당도

안선영·황순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5개의 영역(domain)과 25개의 하위 양상(facet)으로 구성된 DSM-5 성격 특질 모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DSM-5 성격질문지(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영문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 문항들을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통해 우리말로 번안하고, 이 검사의 자기보고형인 K-PID-5(Shin & Hwang, 2016)와 문항 간 의미가 일치하도록 전체 문항을 구성하였다.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K-PID-5 정보제공자보고형(230명)과 K-PID-5 자기보고형 및 성격장애 진단검사(176명)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영역 및 양상들의 내적 일치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요인구조는 영문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요인구조 및 DSM-5 성격 특질 모델과 요인의 수, 3가지 양상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적절히 부합하였다. K-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자기보고형의 일치도는 영문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자기보고형의 일치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지만 성격에 관한 정보제공자보고형-자기보고형의 상관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K-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영역 및 양상들은 각 성격장애의 핵심 성격 특질에 비교적 적절하게 부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이 우리나라 성인의 성격 특질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성격장애, DSM-5, DSM-5 Section III, DSM-5 성격질문지, K-PID-5, K-PID-5-IRF, 정보제공자보고형

Supplementary materials 1.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 문항

▶ 본 설문지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1년 이상 잘 알고 지낸 OO에 대해 설명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신 후 설문지에 응답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OO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반응에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적절하게 체크해주시십시오. (모든 문항에는 'OO은/는, OO이/가'와 같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항은 체크하는 본인이 아닌 OO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므로 주의 깊게 생각해보시고 체크하여 주십시오. OO과는 상의하지 마시고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 다른 사람들에 비해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 2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 3 무모하다.
- 4 전적으로 충동적이다.
- 5 특이한 생각을 종종 한다.
- 6 다른 것들에 주의를 빼앗겨 대화의 흐름을 놓친다.
- 7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
- 8 감정이 차가운 사람이다.
- 9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자신을 맞춘다.
- 10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편을 더 선호한다.
- 11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 12 사랑하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 13 무례하고 불친절하다.
- 14 사람들의 눈에 잘 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
- 15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편이다.
- 16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 17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지 못한다.
- 18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변한다.
- 19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 20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편이다.
- 21 특이하고 이상해 보이는 내용의 얘기를 종종 한다.
- 22 항상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 23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 24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 25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 26 대체로 삶을 즐기지 못한다.
- 27 가끔 어떤 일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 28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짜증나게 하면 바로 쏘아붙인다.
- 29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 30 활기찬 사람이다.
- 31 무책임하다.
- 32 아비할 때가 있다.
- 33 종종 생각하는 것이 기이하거나 특이한 방향으로 빗나가곤 한다.
- 34 일을 정확하게 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 35 위험한 스포츠와 활동은 피한다.
- 36 꿈과 현실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 37 자신의 기이한 느낌에 대해 얘기한다. (예: 신체 중 일부가 죽어버렸거나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 38 화를 잘 낸다.
- 39 위험한 활동을 할 때도 절제를 잘 못하고 한계를 넘고 만다.
- 40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 41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얘기할 때가 있다.
- 42 기억에 관해 설명하기가 힘든 이상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 43 사람들의 찬사를 듣기 위한 행동을 한다.
- 44 기이한 것을 본 것에 대해 얘기한다. (예: 어떤 대상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 45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 46 시간이 다 됐어도 하던 일을 멈추기 어려워한다.
- 47 미리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한다.
- 48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많이 한다.
- 49 사소한 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 50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한다.
- 51 일을 오히려 정확하게 하느라고 비뚤어 정작 다른 많은 것들을 놓친다.
- 52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생각을 종종 한다.
- 53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꾸며서 둘러댈 때가 종종 있다.
- 54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보더라도 그다지 괴로워하지 않는다.
- 55 매우 특이한 것을 얘기할 때가 종종 있다.
- 56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할 때가 종종 있다.
- 57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려고 한다.
- 58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편이다.
- 59 꿈에서 현실을 본 것처럼 생생한 이미지를 본 것에 대해 종종 얘기한다.
- 60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한다.
- 61 자신에 대해 무척 불만족스러워한다.
- 62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감정 반응이 훨씬 더 격렬하다.
- 63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
- 64 단 몇 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 65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
- 66 미래에 대해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 67 위험에 처하는 것을 즐긴다.
- 68 다른 일들에 주의를 빼앗겨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다.
- 69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더라도 멈추질 못한다.
- 70 꽤 특이하고 이상한 편이다.
- 71 낯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생각을 한다.
- 72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
- 73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 74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을 좋아한다.
- 75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 76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교활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 77 사물을 낯설게 또는 이상하게 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
- 78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 79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 80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 어려워 한다.
- 81 자신이 죽으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82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
- 83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 84 감정적이지 않다.
- 85 뒷사람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분개한다.
- 86 사소한 일로도 종종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 87 조금이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피한다.
- 88 짧은 기간이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밀고 나가는 것을 어려워한다.
- 89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90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한다.
- 91 감정을 크게 드러내진 않는 편이다.
- 92 성질이 매우 급하다.
- 93 예전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할 때가 종종 있다.
- 94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때때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 95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초조해한다.

(Continued to the next page)

Supplementary materials 1. Continued

- 96 사랑에 빠지는 것을 즐긴다.
 97 허황되게 행운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전한 쪽을 더 선호한다.
 98 실제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99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멈추지 못한다.
 100 감정이 어떤지 알기 어렵다.
 101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다.
 102 사람들에게 이용당할까봐 걱정한다.
 103 종종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낀다.
 104 자신이 한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105 실제로는 거기에 없는 사람을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 등의 특이한 경험을 종종 한다.
 106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하는 데 능숙하다.
 107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108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
 109 무슨 일이든지 다 걱정거리로 여긴다.
 110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111 간혹 있는 약간의 위험은 개의치 않는다.
 112 대담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 때가 종종 있다.
 113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14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기를 바란다.
 115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한다.
 116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거나 해를 끼칠까봐 항상 경계한다.
 117 집중을 해야 하는 일인데도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다.
 118 자살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한다.
 119 성적인 관계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
 120 어떤 것에 폭 빠져 떨어버리기 어려워한다.
 121 별 것 아닌 일로도 쉽게 감정적으로 된다.
 122 자신의 완벽주의로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할지라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자 한다.
 123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124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5 앞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일을 부풀려 과장한다.
 126 혼자 있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127 자신의 일 처리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식을 고집한다.
 128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매우 부주의하게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129 불안이 심한 사람이다.
 130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131 주의가 쉽게 흐트러진다.
 132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 종종 생각한다.
 133 남보다 앞서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속임수를 쓰는 것쯤 주저하지 않는다.
 134 완벽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러 번 확인한다.
 135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36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137 감정이 순간순간 쉽게 바뀐다.
 138 실제로 그 곳에 있지 않는 것들을 볼 때가 있다.
 139 정해진 방식으로 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140 항상 최악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141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한다.
 142 마음만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143 어떤 것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한다.
 144 연인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145 친구를 사귀는 데 관심이 없다.
 146 사람을 대할 때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한다.
 147 자신이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148 누군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149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전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0 자신의 삶을 매우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151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15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153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54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155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156 어떻게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57 별 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
 158 위험할 가능성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
 159 청구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
 160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61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능숙하다.
 162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163 위험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164 사소한 일로도 쉽게 감정적으로 된다.
 165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별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166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167 종종 비참한 느낌을 받는 것 같다.
 168 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169 항상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170 책임질 상황을 피하곤 한다.
 171 이상한 버릇이나 습관을 많이 갖고 있다.
 172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173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항상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174 혼자 있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
 175 최선을 다해 일을 잘 해놓고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176 언젠가는 자살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177 자신의 성취를 과장한다.
 178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이용할 수 있다.
 179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180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181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182 다른 사람이라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일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
 183 사람들 눈에 유별나고 이상해 보이는 습관이 몇 가지 있다.
 184 사고모임을 피한다.
 185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186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모욕을 당하면 무척 화를 낸다.
 187 어떤 것에도 열정이 없는 편이다.
 188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189 관심 받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190 때때로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 속의 생각을 빼내간다고 생각한다.
 191 세상이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것 같다.
 192 여러 가지 것들을 특이하게 연결 지을 때가 종종 있다.
 193 위험한 일을 할 때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194 물건들이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
 195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볼 때가 종종 있다.
 196 사람들에게 때때로 폭력을 사용한다.
 197 사소한 방해물만 있어도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멈춘다.

(Continued to the next page)

Supplementary materials 2. 한국판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 문항구성

성격 특질 양상(facet)	문항 수	문항 번호
감정 가변성	7	18, 62, 101, 121, 137, 164, 179
경직된 완벽주의	10	34, 49, 104, 114, 122, 134, 139, 175, 194, 218
고집증	9	46, 51, 60, 78, 80, 99, 120, 127, 136
과대성	6	40, 65, 113, 177, 185, 195
관심추구	8	14, 43, 74, 110, 112, 172, 189, 209
기만	10	41, 53, 56, 76, 125, 133, 141*, 204, 212, 216
기이성	13	5, 21, 24, 25, 33, 52, 55, 70, 71, 151, 171, 183, 203
냉담성	14	11, 13, 19, 54, 72, 73, 90*, 152, 165, 181, 196, 198, 205, 206
무책임성	7	31, 128, 155, 159, 170, 199, 208*
무쾌감증	8	1, 23, 26, 30*, 123, 154*, 156, 187
복종성	4	9, 15, 63, 200
분리불안	7	12, 50, 57, 64, 126, 148, 174
불안성	8	79, 93, 95, 108, 109, 129, 140, 173
우울성	14	27, 61, 66, 81, 86, 103, 118, 147, 150, 162, 167, 168, 176, 210
위축	10	10, 20, 75, 82, 135, 145, 146, 160, 180, 184
위험 감수	14	3, 7*, 35*, 39, 48, 67, 69, 87*, 97*, 111, 158, 163*, 193, 213*
의심성	6	2, 102, 116, 130*, 132, 188
인지적/지각적 조절곤란	12	36, 37, 42, 44, 59, 77, 83, 153, 190, 191, 211, 215
적개심	10	28, 32, 38, 85, 92, 115, 157, 169, 186, 214
제한된 경서성	7	8, 45, 84, 91, 100, 166, 182
조중	5	106, 124, 161, 178, 217
주의산만	9	6, 29, 47, 68, 88, 117, 131, 143, 197
충동성	6	4, 16, 17, 22, 58*, 202
친밀성 회피	6	89, 96*, 107, 119, 144, 201
특이한 믿음과 경험	8	94, 98, 105, 138, 142, 149, 192, 207

*역채점 문항 7, 30, 35, 58, 87, 90, 96, 97, 130, 141, 154, 163, 208, 213번(총 14문항).